

‘화합·자율·공정’ 허정무 리더십 빛났다

특심 보여주며 ‘토종 명장’ 우뚝

허정무(55)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패기를 지휘하면서 그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다.

선수단을 하나로 묶으면서 세계축구의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명장으로 우뚝 섰기 때문이다.

허정무 감독의 리더십은 화합과 자율, 공정 등 세 가지로 단어로 요약된다.

허 감독은 지난 2007년 12월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을 당시만 해도 ‘진돗개’라는 별명처럼 고집스럽고 일방통행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권고와 자발적인 심경 변화로 확 달라졌다. 그는 2008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아시아 최종예선에 ‘캡틴’을 맡아왔던 김남일(북 톨스크)이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게 되자 주장 완장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넘겨주면서 선수단의 자율을 강조했다.

허 감독은 박지성에게 “경기장에서는 네가 감독이다. 감독이 전담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장이 대신 이끌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그가 잃어왔던 책에서도 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지난 1월 남아공 전지훈련 때는 윤석근 웅진그룹 회장의 자서전인 ‘공정

이 걸작을 만든다’는 책을 탐독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신바람의 중요성을 선수들에게 주시켰다.

이런 변화는 이운재(수원), 안정환(다렌 스타), 김남일, 이동국 등 고참급 선수와 이승렬(FC서울), 김보경(오이타) 등 젊은 선수들이 혼합된 선수단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강한 카리스마를 내세운 승부수도 그가 가진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는 주변의 반대에도 새로운 선수를 찾기 위해 계속 실험해왔고 ‘유럽파’ 박주영(AS모나코)과 이창용(볼턴), 기성용(셀틱)을 대표팀의 주전으로 기용하며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지난 2월 동아시아연맹 선수권대회에서 중국에 0-3 참패를 당한 후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곧 이은 일본과 맞대결에서 3-1 패승을 지휘하는 모습을 발휘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었던 그리스와 경기에서 2-0 승리를 수확한 뒤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1-4 완패를 당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대신 ‘파주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로 배수진을 친 결연한 자세)라는 고사어를 빗대어 퇴로를 차단하는 비장한 각오로 마침내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의 꿈을 실현시켰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허정무 감독의 고향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초삼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다. /진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사리 진돗개 허정무 만세”

허 감독 고향 진도 의신면 주민들 16강 축하 플래카드 내걸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23일, 허감독의 고향 마을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초삼마을) 주민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마을 입구에는 ‘초삼 허정무 감독 만세’라고 쓰인 가로 5m·세로 1m 크기의 플래카드가 걸려 경사를 맞은 마을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23일 오전 10시 진도군 의신면 초삼마을회관 앞 정자에 주민 30여명이 모였다. 이날 새벽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를 마치고 16강이 확정된 축구 국가대표팀과 이 마을 출신인 허정무 감독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32가구가 살고 있는 초삼마을 주민들은 정자에 술과 떡, 수박 등 음식을 차려놓고 허정무 감독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주민들은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를 모두 갖춰 입고 ‘대~한~민~국’과 ‘허정무’를 연호했다. 이전부터 마을주민들의 자랑거리였던 허감독은 이날 고향 마을에서 다시 한 번 ‘영웅’으로 떠올랐다.

대부분 70~80대로 고령인 주민들은 주로 허감독의 어릴 적 모습을 추억했다. 주민들에게 허감독은 논두렁에서 쪼꼬로 만들어진 공을 매우 잘 차는 소년이었다. 마을사람들은 허감독이 현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논두렁에서 매일같이 공을 차며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기억했다.

유난히 뛰어난 운동신경도 마을 주민들이 허감독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초삼마을 주민 허형주(80)씨는 “정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

랐다”면서 “특히 달리기는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허감독은 초등학교 시절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책임감과 인내성, 창조성이 뛰어난 학생으로 알려졌다. 허감독은 의동초 졸업후 목포중·영동포공고·연세대를 거쳤다.

한편, 초삼마을 주민들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하고 우승까지 바라는 의미에서 우루과이전이 열리는 26일 마을회관에 모여 단체응원전을 펼쳐기로 했다. 진도군 역시 진도출신인 허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월드컵에서 선전하자 우루과이전에는 향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형 응원전을 열 계획이다.

/진도=김희기자 kimho@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에 진출 한 한국대표팀 허정무 감독이 23일 남아공 더반 스타디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10분의 1이라도 좀 닦아봐라

기무사령관 배득식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장성 27명 승진인사

정부는 23일 국군기무사령관에 배득식(육사33기·56) 소장을, 해병대사령관에 유낙준(해사33기·53) 소장을 각각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는 등 장성 27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해군작전사령관에는 황기철(해사 32기·53)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조정환(육사33기·55) 중장이, 해군참모차장에는 최원희(해사31기·56) 중장이 보임됐다.

육군은 육사 34기인 서길원, 심용

식, 이준구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으로 진출한다. 정홍용(육사33기) 소장은 2년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감사원이 전안함 사태 전후로 대응조치에 미흡했다며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진급에서 누락됐다.

◇육군(19명) ▲소장→중장 = 서길원, 심용식, 이준구(이상 정규), 배득식, 정홍용(이상 임기제) ▲준장→소장 = 강병주, 공석철, 김영식, 박찬주, 서형서, 신동만, 신원식, 안병태, 이문석, 이재수, 정태희(이상 사단장 11명), 배명현, 윤종성, 이봉범(임기제) ◇해군(8명) ▲소장→중장 = 손정목, 원태호, 황기철, 유낙준(해병) ▲준장→소장 = 김광석, 문병욱, 엄현성, 이영주(해병) /연합뉴스

천리안 위성 오늘 오전 6시 41분 발사

국가우주개발사실 첫 작품인 천리안 위성이 24일 우주로 쏘아올려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국내 연구개발에 의해 제작

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24일 오전 6시 41분(현지시간 23일 오후 6시 41분) 남미 프랑스령 가

라고 23일 밝혔다. 천리안 위성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위성인 아랍셋(ArabSat) 5A호와 함께 발사 용역업체인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Arianespace)사의 아리안-5ECA 발사체에 조립된 상태로 발사대로 옮겨져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농산물의 안심맞춤 비료!

경성인회석 대리점모집

친환경 기업이자 무공해 신소재 전문개발업체인 (주)경성천연농업이 자체개발한 제품 경성인회석이 국내 농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 화제!

자연(국내광산에서 추출한 광물질을 주원료로한 친환경비료 100%천연공법으로 적용한 제품이다. 대부분의 비료가 화학합성을 통해 생산되며 이 제품은 100%천연공법으로 적용한 제품이 없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구용성인 경성인회석의 장점은 시비된 비료가 빛물에 유실없이 토양에 오래 잔류하면서 작물생육에 가장 이상적인 공급방법이다. 현재까지 판매결과 식품의 성장속도는 물론 병충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어 최근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심맞춤의 비료로도 각광받고있다. **영업사원 : 00명모집**

(주)경성천연농업

대표 전화 070)4138-5779

문의전화 : 010-5574-6766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16기) 6월 26일(토)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絡/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중의계(5년) 졸업증과 침구사, 중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시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미국 한의대편입(3~4년), NCCAOM고시 응시자격

*요양중의대학 한국분교(가.한성보건대학) 총동문회 창립(2010.5.23) CH중국문화원 대학반 졸업자들은 연락바랍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법률경제전문법인 한미음법률경제(주)

"지역별, 평행별 다량의 불건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시는 불건을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역	소재지	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관동동	1586	2억9천2백	1억9천2백	
	광주동	1888	1억9천2백	1억1천2백	
	일곡동	1491	1억9천2백	8천2백	
	우산동	208	2억2백	1억9천2백	
남구	주월동	383	2억5천5백	1억9천2백	
	일산동	331	1억9천2백	3천2백	
	사동	473	1억9천2백	8천2백	
	화정동	283	2천2백	1천7백	
동구	지산동	1983	2억9천2백	1억9천2백	
	대천동	314	8억1천2백	3억9천2백	
	대천동	826	10억2백	7억2백	
	대천동	281	1억9천2백	7천2백	
서구	충효동	1491	1억9천2백	8천2백	
	영동동	25190	4천2백	2천2백	
	일곡동	1491	1억9천2백	8천2백	
	마곡동	2575	1억9천2백	8천2백	
곡성군	침곡동	292	1억2천	8천2백	
	침곡동	3409	4천2백	3천2백	
	침곡동	664	6천2백	4천2백	
	침곡동	1587	1억9천2백	1억9천2백	
영동군	침곡동	1472	2천2백	1천7백	
	침곡동	50195	2천5천	1천9천	
	침곡동	6256	6천2백	4천2백	
	침곡동	18775	1억9천2백	1천2백	
장성군	침곡동	3839	8억9천2백	2억9천2백	
	침곡동	2786	1억9천2백	7천2백	
	침곡동	146983	8천2백	4천2백	
	침곡동				

정매 ※내집마련,계테크,지금이 기회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와 상담하십시오.